

〈날개〉의 삶의 空間과 그 意味

許 珉 碩*

目 次

- | | |
|--------------------|-----------------|
| I. 序 論 | IV. 指向空間과 實現可能性 |
| II. 〈나〉의 삶의 양식 | V. 結 論 |
| III. 삶의 공간과 체험의 확대 | |

I. 序 論

李箱의 作品世界에 대한 논의는 그 자신의 기존 관념과 創作方式을 탈피한 文學形式이 보여주는 破格性으로 말미암아 同時代 뿐만 아니라 현재에 이르기 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그의 作品世界는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연구방법 또한 새로운 시각에 의해 접근되어 지고 있다. 특히 정산 분석학·심리학·수학 등의 인접과학을 원용하면서 상당한 해석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보다 접근된 이해를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¹⁾

그런데도 여전히 그의 作品世界가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이 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같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기존의 논의가 수궁이 가면서도 李箱文學이 보여주는 탈형식성과 파격에 압

* 국어교육과 4년

1) 鄭貴永, 「이상문학의 초의식심리학」, (現代文學, 1973.9~11.).

金鍾殷, 「李箱의 理想과 異常」, (文學思想, 1973.7).

金容雲, 「李箱의 難解性」, (文學思想, 1973.11)

도당한 나머지 그의 文學이 지니는 時代性을 중시하지 않은 데도 그 원인의 일 단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先行研究들의 성과는 그것대로 의의를 지니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李箱文學에 대한 評價가 어느 특정 작품에 국한되어 이루어지지 않는지, 또는 반성과, 마치 李箱을 時代를 뛰어 넘는 超人間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한 작가의 作品世界에 대한 보다 접근된 이해를 위해서는 시각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연구성과들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그의 문학경향과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될 것이다.

李箱 小說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그의 作品 만큼이나 특이한 생애와 지나치게 연관시켜 파악한 나머지 사소한 것에까지 집착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모든 文學作品의 일차적 이해는 그것의 統一性에 대한 가정에 입각해야 한다. 그러한 가정이 결국 아무리 그릇된 것으로서 판명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일종의 발견적 원리로서 이것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더 우기 모든 노력은 우리가 읽은 것의 전체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간다”²⁾고 볼 때 결국 小說 속에 나타나는 現實은 무엇보다도 개체적인 삶 또는 개개 순간의 구체적인 직접성 속에 체험되는 현실³⁾이며, 李箱의 小說들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小說이 현실의 반영이라는 기본적인 명제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作品 속의 세계가 일상적 현실세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小說 속의 人物의 삶의 양상과 生活空間, 그리고 現實과의 相關關係 속에서 파악해 보는 것도 의의있는 일일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유의하면서 李箱의 作品 「날개」를 小說 속의 삶의 영역으로서의 空間⁴⁾이 갖는 意味를 중심으로, 小說 속의 人物의 體驗空間의 변화에 따른 意識의 변모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小說 「날개」를 보는 시야를 넓히고자 한다.

2) N. Frye 외/김인환 譯, 『문학의 해석』, (弘盛社, 1981), p.135.

3) 金禹昌, 『궁핍한 時代의 詩人』, (民音社, 1985), p.12.

4) 본 고에서 말하는 空間은 추상적인 의미의 공간이 아니라 小說 속의 등장인물이 삶의 체계를 그리며 사는 생활체험의 場으로서의 空間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고가 전개되는 동안 空間이라는 用語는 ‘삶의 체험의 場’ 또는 그것을 이루는 부분을 나타낸다.

II. 〈나〉의 삶의 양식

하나의 作品이 그 作家가 살아 온 時代와 직접·간접으로 관련된다고 볼 때, 우리는 作品 속의 人物이 어떤 유형이든 주어진 狀況에 결부된 삶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삶의 양식은 본질적 존재로서의 자아와 현실 존재로서의 자아의 복합성을 띠며, 사회적 환경인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과거와 미래의 흐름 속에서의 하나의 존재란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 한 인물로서의 개별성과 사회·역사적 존재로서의 양면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체적 삶 자체에 독자성을 부여하고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설의 인물도 그 삶을 형상화시켜준 작품 그 자체의 독자성을 인정해야 한다.⁵⁾

결국 登場人物의 삶이란 作品 속에 주어진 또 하나의 세계 속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 인간의 內面精神의 궤적은 그가 살고 있는 현실 공간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作品 속의 世界는 나름대로의 삶의 양식을 지니며, 그에 따른 의미도 결코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된다.

이러한 立論을 바탕으로 본 고에서는 李箱과 「날개」의 〈나〉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서 살피고자 한다. 이 ‘거리’가 확보되지 않을 때 小說 속의 〈나〉의 存在意味는 그만큼 약화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를 作家의 分身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나 처한 狀況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의 양식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날개」의 경우 이러한 삶의 양식이 作品全體의 큰 뼈대를 이루고 있으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의 삶을 드러내는 形式이라고 할 때 「날개」에서는 現實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와 그 속에서의 체험을 통해 〈나〉란 인간이 취해야 할 행동양식까지도 제시해주고 있다. 즉 作品全體가 〈나〉의 삶의 현실에서 출발한 변모양상과, 그 과정 속에서 얻는 체험의 확대로 이어진다고 볼 때, 한 時代의 現實 속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양식은 〈나〉가 보여주는 여러 행동들과 무관하지 않다.

5) 玄吉彦, 「玄嶺健作品論(2)」, (李慶善博士回甲記念論文集), pp. 347~348.

해가 들지 않는다. 해가 드는 것을 그들이 모른 채하는 까닭이다. 턱살 밑에 다 철줄을 매고 얼룩진 이부자리를 널어 말린다는 핑계로 미닫이에 해가 드는 것을 막아 버린다. 침침한 방 안에서 낮잠들을 잔다. 그들은 밤에는 잠을 자지 않나? 알 수 없다. 나는 밤이나 낮이나 잠만 자느라고 그런 것을 알 길이 없다. 三十三번지 十八가구의 낮은 참 조용하다.⁶⁾

해가 들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일부러 햇빛을 기피하고 있다. 낮에 잠을 자는 三十三번지의 사람들은 낮의 생활을 의식적으로 거부한 채 日常的 삶에서 일탈되고 있다. 그 속의 일원인 <나>는 밤낮으로 잠만 잔다.

즉 낮의 일상성을 거부하는 <나>의 파행적 삶은 낮을 밤의 연장선상에 놓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점은 三十三번지에 사는 집단의 공통적 삶의 양태로 나타난다. <나>의 과거의 삶이야 어찌했건간에 <나>는 지금 日常이 顛倒된 時間과 空間 속에서 밤낮을 잠으로만 일관하는 非日常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조용한 것은 낮뿐이다. 어둑어둑하면 그들은 이부자리를 걷어들인다. 전등불이 켜진 뒤의 十八가구는 낮보다 훨씬 화려하다.⁷⁾

햇빛을 거부하는 三十三번지 사람들은 밤의 일상성조차 거부하려 한다. 그들은 어두워지면 일어나 불을 밝히고 활동을 시작한다. 이처럼 三十三번지내의 사람들은 非日常의 空間 속에서 낮과 밤의 시간을 人爲的으로 바꾸어 버리는 기이한 존재들인 것이다.

이런 곳에 살고 있는 <나>는 이 空間이 주는 日常의 파괴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더우기 ‘아무와도 놀지 않고 아내와의 누구와도 인사를 하지 않는’ 親交의 기능까지도 상실해 버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더 밀폐된 공간 속으로 삶의 무대를 옮긴다. 그곳이 바로 자신의 방으로, 그 방은 ‘행복되다고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6) 李御寧校註, 『李箱小說全作集』, (甲寅出版社, 1977), p. 16.

이하 본문인용은 『전집』이라 칭함.

7) 『전집』, p. 16.

곧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지는 못하지만 <나>에게 무한한 자유를 제공해 주는 곳이다. 또한 이 속에서 <나>는 나름대로의 삶에 대한 생각도 갖게 된다.

내 몸과 마음에 옷처럼 잘 맞는 방 속에서 뒹굴면서, 축 처져 있는 것은 행복이니 불행이니 하는 그런 세속적인 계산을 떠난 가장 편리하고 안일한 말하자면 절대적인 상태인 것이다. 나는 이런 상태가 좋았다.⁸⁾

<나>의 삶에 대한 태도는 현재에 만족해 버려 곧, 그 자체로서 정체되어 발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나>의 삶은 어떠한 것에도 신경쓰기를 싫어하며, 고작 <아내>의 방에서 장난하는데 그쳐 버린다. 이러한 <나>의 의식의 한정은 생활공간 범위의 한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아내>방에서의 장난도 햇별이 사라짐과 함께 끝나면 방으로 돌아와 낮잠을 잔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생각에 잠기기도 한다. 하지만 제법 능동적인 주체로서 하는 이 사고행위도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다. <나>는 “인간의 의식마저 소멸하고 絶對의 孤獨에서 일상의 인간 쿨레마저 벗어버리고 싶어하는”⁹⁾ 패배적 인간상을 보여준다.

나는 그러나 그런 이불 속의 사색 생활에서도 적극적인 것을 궁리하는 법이 없다. 내게는 그럴 필요가 대체 없었다. 만일 내가 그런 좀 적극적인 것을 궁리해 내었을 경우에 나는 반드시 내 아내와 의논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나는 아내에게 꾸지람을 들을 것이고—나는 꾸지람이 무서웠다느니 보다는 성가셨다. 내가 제법 한 사람의 사회인의 자격으로 일을 해 보는 것도 아내에게 사설 듣는 것도 나는 가장 게으른 동물처럼 게으른 것이 좋았다. 될 수만 있다면 이 무의미한 인간의 탈을 벗어 버리고도 싶었다.¹⁰⁾

<나>에게는 적극적인 사색을 할 필요가 없다. 만약 그런 것을 궁리해 뱃더라도 겪어야 하는 과정이 싫은 것이다. 자신의 행위를 아내와 의논하는 것조차 꺼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인간이 지닌 최대의 무기라 할 수 있는 사고행

8) 『全集』, p. 19.

9) 尹弘老, 『韓國文學의 解釋學의 研究』, (一志社, 1978), p. 278.

10) 『全集』, p. 23.

위조차 포기하고 인간의 탈까지도 포기하면서, 게으름 속으로 도피하고자 하는 意識만이 절대적 위치를 차지한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생존에 대한 반발심”¹¹⁾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나>의 삶의 양식은 결국 <아내>와도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 버린다. 모든 것을 외면한 채 한정된 空間 속에서 外部와 단절된 상태로 <나>의 삶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곧 장지문을 사이에 두고 옆방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무관심한 채 오로지 자신의 일에만 골몰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며, 결국 삶에 대한 극단적인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 다시말하면, <나>가 現實과 社會로부터 소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소외되기를 희망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나에게는 인간사회가 스스로왔다. 생활이 스스로왔다. 모두가 서먹서먹할 뿐이었다.¹²⁾

하나의 건강한 생활인으로서의 자세, 그것은 곧 ‘인간의 탈’이며 그러한 가면을 벗어버리는 행위가 본래 <나>의 모습인 것이다. 사회인으로서 삶의 양식을 잃어버렸기 보다는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런 <나>에게 있어 필요한 것은 그저 자신의 존재 자체일 뿐이며, 여기서 <나>는 한없는 자유가 허용된 방으로의 생활로 들어간다.

결국 대부분의 일상적 삶의 요소를 떨쳐버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을 취하며 사는 <나>의 삶의 양식은 원초적인 도피의 몸부림이 아닌 좌절의 연속이 누적되어 탈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곧 적극적인 생각을 하면 반드시 <아내>와 의논해야 하고 그러면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는 狀況下에서의 삶은 <나>에게 日常人과 다른 삶을 강요한다. 따라서 이런 狀況에서 잉태되는 삶은 도피가 아닌 좌절의 연속에 따른 탈출이다. 다만 그 탈출양식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데 문제가 있다.

<나>의 자유는 세계와의 절연에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의 人生은 완전히 메마르고 위축된 것이 되어 그의 생활공간은 조그마한 자기 방에 한정된다.¹³⁾

11) 曹秉武, 「날개의 두 表象」, (現代文學; 1963.1), pp.102~113.

12) 『全集』, p.23.

13) 金禹昌, 앞의 책, p.22.

이런 삶이 지속될 때 〈나〉는 사회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나〉를 살핀다는 것 자체가 의미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잃어버렸던 일상에 대한 탐구의 호기심이 살아남으로써 〈나〉의 삶 속에 변화의 요소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나〉가 보여주는 일련의 외출과, 전갈지 않은 여러 행동들은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찾기 위한 것이거나 모든 주위의 것에 유리되어 버린 자신을 그 이전의 상태로 돌리기 위한 일련의 행동, 그것은 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본래 모습과 현재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나〉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는 삶의 공간과 그 속의 체험을 통해 보다 확연히 규명되어질 것이다.

Ⅲ. 삶의 공간과 체험의 확대

여기서는 考察의 편의를 위해 〈나〉와 〈아내〉의 삶의 공간, 외출 그리고 외출이 가져오는 체험과 의미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나〉와 〈아내〉의 삶의 공간을 살펴보자.

삶의 현장을 실재공간으로 설정하는 小說에 있어서 空間의 意味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作品의 전체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한편, 등장인물의 활동 영역을 제공해 주는 小說의 背景의 一部分인 空間으로, 즉 장소적 의미로서의 축소된 공간개념으로서도 空間은 小說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된다.¹⁴⁾ 이런 면에서 볼 때 「날개」에 있어서도 〈나〉가 삶의 궤적을 그리며 살아가는 空間의 意味는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나〉에게는 보다 나은 삶의 조건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 버리고, 〈나〉는 주어진 삶의 공간에 安住하고 만다. 그 삶의 공간은 거의 밀폐된 방이다. 〈나〉의 방은 〈아내〉의 방과 장지문으로 갈려진 방이며, 〈아내〉의 방을 통해서만 외부 세계와 통할 수 있다. 따라서 〈아내〉의 방은 〈나〉가 외부세계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 이런 점에서 〈나〉의 공간은 〈아내〉의 공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아내〉의 공간과의 연관에서만 올바르게 파악될 수 있다.

14) 申相星·俞漢根, 『韓國文學의 空間構造』, (螢雪出版社, 1986), p.120.

이 절대적인 내 방은 대문간에서 세어서 똑-일곱째 칸이다. 력지 세븐의 뜻이 없지 않다. 나는 이 일곱이라는 숫자를 혼장처럼 사랑하였다. 이런 이 방이 가운데 장지로 말미암아 두 칸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그것이 내 운명의 상징이었던 것을 누가 알라?¹⁵⁾

원래는 하나였던 방이 둘로 나뉘어진 이 방들은 하나의 문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속의 두개의 공간으로서 방은 서로 다른 면을 지니고 있다. 그것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도표1>

웃 방(나의 방)	아랫방(아내의 방)
해가 들지 않음	해가 들
침침하다	화려하다
웃이 없다	화려한 치마와 저고리가 걸려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이상의 방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방에 만족하며 즐겨워 한다. 그러나 이러한 安住의 이면에는 幸·不幸을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저 게으름이 허용된다는 前題가 깔려 있다. 자기만의 空間에서는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가 보장되기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방에 대한 만족은 조건적인 만족이며 그 조건도 절대적이지는 않다. 이것은 동시에 “아랫방과의 관련을 定立시키려는 태도이며 다분히 의식적인 행위”¹⁶⁾로 보여진다.

그래서 <나>는 자신의 방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것들을 얻기 위해 <아내>의 외출을 틈타 <아내>의 방으로 와서 햇빛을 가지고 장난을 하며, 화장품병으로 유희를 즐긴다.

어느덧 손수건만해졌던 별이 나갔는데 아내는 외출에서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요만 일에도 피곤하였고 또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내 방으로 가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하고 그만 내 방으로 건너간다. 내 방은 침침하다. 나는 이불을 뒤집

15) 『全集』, p.19.

16) 金炳澤, 「날개의 Imagery에 관한 연구」, (東岳語文論集, 1977). p.271.

어 쓰고 낮잠을 잔다.¹⁷⁾

죽고 싶을 만치 <나>에게는 재미있고, 또한 장난을 할 수 있는 <아내>의 방은 다만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비워주어야 할 제한된 공간일 뿐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은 잠 밖에는 청할 것이 없는 곳이다. 여기서 우리는 실상 <아내>의 방이 <나>에게 더 자유로움을 주며, 모든 것이 허용된 듯이 보이는 <나>의 방은 행위가 제한된 밀폐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는 아랫방(아내의 방)과 웃방(나의 방)은 그 출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는 <아내>가 외출한 틈, 즉 <아내>가 없을 때에만 아랫방에 들어갈 수 있으나 <아내>는 웃방에 <나>가 있을 때 찾아 온다. <나>에게 출입이 제약된 아랫방에 비해 웃방은 <아내>에게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 아랫방과 웃방의 이런 차이는 외부공간과의 교류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아내는 외출한다. 외출할 뿐만 아니라 내객이 많다. 아내에게 내객이 많은 날은 나는 온종일 내 방에서 이불을 쓰고 누워 있어야만 된다.

……………中略……………

내객들이 돌아가고, 흑 밤 외출에서 돌아오고 하면 아내는 경편한 것으로 옷을 바꾸어 입고 내 방으로 나를 찾아온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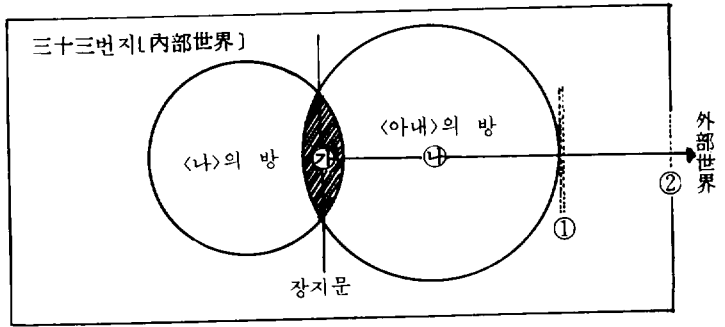
이처럼 <아내>의 방은 외부세계와 내객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그것은 逆으로 <나>에게는 닫혀 있는 時間 속의 空間으로 자리한다. 또한 <아내>는 외출도 자유롭지만 외출에서 돌아오면 <나>의 방을 <나>의 意志와는 관계없이 찾아 온다. <나>에게 제한된 공간으로서의 <아내>의 방과 <아내>에게 어떠한 구속력도 갖지 않는 <나>의 방은 필연적으로 불평등히 삶의 공간을 창출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

17) 『全集』, p. 22.

18) 『全集』, pp. 24~27.

〈도표2〉



장지문에 의해 막혀 있는 속에서도 〈아내〉가 없는 틈을 타 접해볼 수 있는 〈나〉의 경험 세계는 ㉔라는 한정된 곳임에 비해 〈아내〉의 공간은 내부세계를 넘어 외부와의 접촉도 자유롭다. 곧 〈아내〉는 ㉔의 경로를 통해 外部世界와 관련되지만 〈나〉에게는 ㉑의 출구마저도 거의 봉쇄되어 버리고 만다.

그런데 ㉑은 〈나〉가 아닌 내객에게는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으며, 〈나〉에게는 거의 허용되지 않는 ㉒의 통로는 그들에게 존재 의의조차 없다. 더구나 내객의 출현으로 ㉔의 공간마저도 막혀 버리고 그나마 〈나〉만의 공간마저도 자유롭게 영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外部世界에서 볼 때 더욱 더 깊숙히 〈나〉의 방은 밀폐된 공간이 되며 〈나〉는 그 속에 갇혀버리게 된다. 이런 점에서 “〈나〉가 내부의 세계에서 산다면 〈아내〉는 外部의 세계에서만 산다”¹⁹⁾고 할 수 있다.

이런 狀況에서의 外出이 갖는 意味를 그 過程을 통해서 살펴보자.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과 조건에 만족하던 〈나〉는 내객의 출현으로 또 하나의 공간인 ㉔마저 막혀 버리자 〈나〉와 〈아내〉의 일상을 비교하는 데서 시작하여 〈아내〉의 돈의 출처와 의미를 탐구하게 된다.

아내는 물론 나를 늘 감금하여 두다시피 하여 왔다. 내게 불평이 있을 리 없다. 그런 중에도 나는 그 채감이라는 것의 유무를 체험하고 싶었다.²⁰⁾

19) 尹弘老, 앞의 책, p.285.

※ 尹弘老는 「날개」의 구조를 二值的 對立構造로 파악했다.

20) 『全集』, p.30.

이러한 탐구의 지속은 돈과 쾌감과의 관계를 연관시키는데까지 나아간다. 〈나〉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의 삶을 막연하게나마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 갇힌 공간에서의 삶 이외의 것에는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돈이 주는 쾌감을 맛보기 위해 〈나〉로서는 크나 큰 모험을 시도한다. 이 시도로서의 外出은 갇힌 공간의 삶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의 발현으로서의 外出이 아니라, 돈이 주는 쾌감의 유무를 체험하고 싶은데서 나온 것으로 그 外出 또한 ‘아내의 밤 외출 틈을 타서 나온’ 소극적 행동의 소산이다.

오래간만에 보는 거리는 거의 경이에 가까울 만치 내 신경을 흥분시키지 않고는 하지 않았다. 나는 금시에 피곤하여 버렸다. 그러나 나는 참았다. 그리고 밤이 이슬하도록 까닭을 잊어 버린 채 이 거리 저 거리로 지향없이 헤매었다. 돈은 물론 한푼도 쓰지 않았다. 돈을 쓸 아무 염두도 나서지 않았다. 나는 벌써 돈을 쓰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았다.²¹⁾

그러나 〈나〉의 의도는 무산되고 만다. 오랫동안 보는 거리는 〈나〉로 하여금 설 자리를 주지 않았고, 돈을 쓰려해도 그 돈은 〈나〉에게 본래의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거리에서 돈을 바꿀 줄은 알아도 쓰지 않는 것은 外出의 목적을 달성할 대상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해서 〈나〉의 첫외출은 무위로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나 돈과 쾌감에 대한 욕망은 끊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나〉는 생각 끝에 〈아내〉의 방으로 건너가 〈아내〉에게 돈을 전내준다. 즉 〈나〉는 외출에서 못얻은 것을 내객이 하는 행위처럼 〈아내〉에게 행해서 쾌감과 동시에 비밀 또한 알아낸다. 다시 말하면 외출이 돈과 함께 쾌감을 체득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 버린 것이다.

또 거리로 나섰다. 나서면서 나는 제발 시간이 화살 달듯 해서 자정이 어서 췌 지나버렸으면 하고 조바심을 태웠다. 아내에게 돈을 주고 아내 방에서 자 보는 것은 어디까지든지 좋았지만 만일 잘못해서 자정 전에 집에 들어갔다가 아내의 눈총을 맞는 것은 그것은 여간 무서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저무도록 길가 시계를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고 하면서 또 지향없이 거리를 방황하였다.²²⁾

21) 『全集』, pp. 30-31.

22) 『全集』, p.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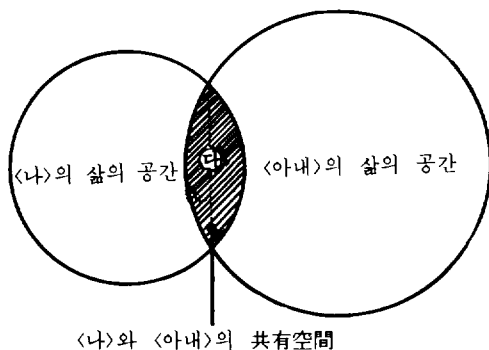
〈아내〉의 외출로 자유를 누리던 〈나〉는 돈과 쾌감의 관계를 알기 위해 첫 외출을 한 후 다시 외출을 생각하나 〈나〉의 외출은 〈아내〉의 외출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출은 나갈 때와 마찬가지로 돌아올 때도 계약을 감수해야 하는 행위다. 그 계약을 어길 때 겪어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나〉의 말은 〈나〉라는 人間이 어떠한 사람인가 알려준다.

외출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권태의 집적에 따른 절망으로부터의 도피이며, 〈나〉가 누리던 “구속 속의 자유와 유희로부터의 탈출”²³⁾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의 의식은 삶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면서도 삶의 공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나〉의 부단한 의지를 보여준다. 〈나〉의 이어지는 일련의 외출의 양상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외출의 제약과 귀가의 제약은 〈나〉로 표상된 人間들의 절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아내〉에게 寄食하며 사는 〈나〉의 위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어느 때 〈아내〉의 결단에 의해 관계가 깨어지고 그나마 〈나〉에게는 安定된 삶의 공간이 사라져버릴지 모른다는 不安이 잠재해 있다. 그래서 아내의 눈총은 〈나〉에게 무서운 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출을 하면서도 자신의 삶의 공간을 떠난 다른 생활공간을 찾는다는 것은 〈나〉에게는 至難한 일에 속한다.

따라서 두번의 외출로 얻어진 생활의 변화는 〈나〉에게 커다란 기쁨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나〉와 〈아내〉의 顛倒된 삶을 확인하는 절망이 뒤따르는 逆說의 인 기쁨인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나〉와 〈아내〉와의 한정된 共有空間을 확인하게 될 뿐이다.

〈도표3〉



23) 金炳澤, 앞의 글, p.276.

〈도표2〉에서 ㉔의 공간은 〈나〉와 〈아내〉의 관계가 변화된 상황 속에서도 제한된 넓이(㉔)로 밖에는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나〉가 〈아내〉만의 공간을 전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듯이 〈아내〉 역시 〈나〉의 공간의 일부만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하나의 방을 장지문을 사이로 구분한 〈나〉와 〈아내〉의 삶의 방식의 차이로 인해 부부로서의 共有空間은 극히 일부분을 차지해 왔을 뿐이다. 부부 관계에서 볼 때 위의 ㉔의 공간은 너무 작은 공유면적만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들 부부는 공통의 삶 보다는 각자가 자신의 삶으로 현격히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돈은 확실히 없다. 오늘은 외출하여도 나중에 올 무슨 기쁨이 있다.
나는 앞이 그냥 아득하였다.²⁴⁾

외출을 생각하곤 돈을 찾는다. 〈나〉에게 돈이 없는 외출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아내〉와의 관계를 갖기 위해 외출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돈은 절대적인 것이다. 이때 〈아내〉는 돈을 주어 〈나〉의 외출을 도와주고 자신의 편의를 구한다. 〈나〉의 세번째 외출은 경성역의 티룸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이 가기만 기다린다. 이것은 〈나〉가 외출을 거듭하면서 日常人으로서의 自我에 눈뜨기 시작한 것을 보여준다. 외출이 반복되면서 외부세계에 익숙하게 되고 기다리기에 알맞은 장소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外出로 인해 日常的 自我에 눈뜨기 시작한 〈나〉에게 외출은 변모된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나는 차츰 또 외출하고 싶은 생각이 났다. 그러나 아내는 나더러 외출하지 말라고 일르는 것이다. 이 약을 날마다 먹고 그리고 가만히 누워 있으라는 것이다.²⁵⁾

세번의 외출로 하여 〈나〉는 한정된 공간외의 또 다른 생활공간을 발견하고 그 곳으로의 飛翔을 원한다. 그러나 外出은 외부공간의 작용에 의해 저지되고

24) 『全集』, p. 40.

25) 『全集』, p. 44.

〈아내〉에 의해 그것이 거듭 확인되는 것이다. 〈아내〉는 〈나〉에게 약을 연복시키며 누워 있기를 원한다. 그 약은 본래적인 기능을 가진 약이 아니라 〈나〉의 외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아내〉 자신의 생활에 있어 장애요소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난다.

〈나〉는 그 약을 먹고 한달 동안 폐쇄된 공간 속에서 지내게 된다. 이 공간 속에 갇힌 동안 〈나〉의 의식과 행동은 외출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나 자기가 먹은 것이 ‘아달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나〉의 의식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그것은 하나의 충격이며, 외출의 반복으로 인해 깨어난 〈나〉의 의식 속에 행동의 신호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서 〈나〉는 외출로 해서 의도하는 바를 얻었고 만족한 〈나〉는 다시 자신의 공간 속에 머무르려 할 때 ‘아달린’의 출현은 〈나〉의 체득된 의식에 충격을 가하고, 그것은 〈나〉의 행동으로 연결된다.

별안간 아득하더니 하마터라면 나는 까무러칠 뻔하였다. 나는 그 아달린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산을 찾아 올라갔다. 인간 세상에 아무것도 보기가 싫었던 것이다. 걸으면서 나는 아무쪼록 아내에 관계되는 일은 일체 생각하지 않도록 努力하였다. 길에서 까무러치기 쉬우니까다.²⁶⁾

약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외출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삶의 기쁨은 상실되고 현실세계는 물론 한동안 만족했던 것들에 대한 否定으로 나아간다. 이어서 〈나〉로서는 세번까지 이어져오던 외출과는 다른 심각한 외출을 하게 된다. 그리고 ‘아스피린’과 ‘아달린’ 사이에서 〈나〉는 被害意識에 사로 잡히게 된다. 이것은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지는’ 환영에 사로 잡히는 간접적 加虐行爲로까지 나아간다.²⁷⁾

하지만 〈나〉의 의식은 결국 자신의 사고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갈등으로 나타나면서, 〈나〉는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의 상실을 겪는다. 이처럼 1~3번째의 외출에서는 모두 현실세계 속에서의 기쁨과 안식을 얻기 위한 막연한 몸부림이 나타난다. 그러나 4번째의 외출에서부터는 현실세계 속에서의 기쁨과

26) 『全集』, p. 46.

27) 金炳澤, 앞의 글, p. 277.

안식을 포기하고 있다. 보다 평온한 세계, 더 자유로운 세계를 향해 4번째 외출에서 이미 발돋움을 하고 있다.²⁸⁾

그러나 강요된 5번째의 외출에서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나>라는 인간의 불안·고뇌는 결국 自業自得의 속성을 지녔다.”²⁹⁾는 것을 표출하는 것밖에 안된다. 결국 새로운 의미를 찾아 시도했던 외출은 內部世界와 外部世界에서 번민하는 <나>라는 人間을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外出이 가져오는 체험과 그 意味에 대해서 살펴보자.

밀폐된 공간인 방에 갇힌 자아를 회복하려는 <나>의 노력은 외출을 통해 나타난다. 외출은 답답하고 갇힌 狀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의 일환이다. 따라서 「날개」에서 보여지는 일련의 외출의 반복은 <나>의 삶의 영역의 확대와 그에 따른 새로운 체험의 확산으로 삶이 외면된 공간을 극복해 내려는 意志의 표출인 것이다.

나는 아내의 방 외출 틈을 타서 밖으로 나왔다. ………

그리고 밤이 이슬하도록 까닭을 잊어 버린 채 이 거리 저 거리로 지향없이 헤매었다.³⁰⁾

나는 그냥 즐달음박질을 쳐서 나와 버렸다. ………

나는 어디로 어디로 더럽다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쓰꼬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³¹⁾

<나>는 결코 日常을 잊은 인간은 아니다. 그런 것이 필요없게 되어 버렸을 뿐이다. 그리하여 <아내>를 피해 외출을 하고 그것이 외출의 반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필요에 따른 필연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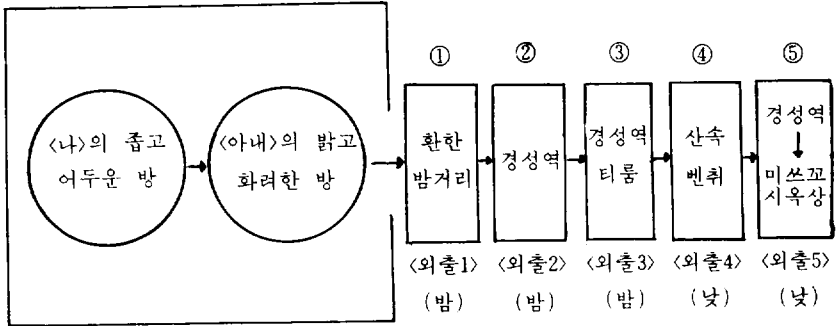
28) 金亨子, 『韓國近代小說의 文體論의 研究』, (三知院, 1985), p. 306.

29) 金炳澤, 앞의 글, p. 278.

30) 『全集』, pp. 30~31.

31) 『全集』, p. 49.

〈도표4〉



위의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외출의 반복이 <나>의 삶의 공간을 확대하며 지금까지 불필요에서 잊어왔던 것, 무의미하게 넘겼던 것들에 대한 새로운 認識으로 확산된다. 밤에 이루어진 ①~③의 외출은 자신이 찾은 생활에 대한 확인의 욕구로서 이루어지나 반복의 순간마다 <나>는 하나씩 체험의 영역, 삶의 공간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③과 ④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나>의 행동은 日常的 自我를 거의 회복했음을 보여 준다. ⑤의 과정에서 갈 곳 정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생활공간은 여전히 한정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비록 정신적인 면에서는 자아를 회복했는지언정 경제적으로는 무능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④와 ⑤의 과정에서 <나>와 <아내> 사이의 파탄은 <나>로 하여금 安住할 공간을 許與해 주지 않는다. 때문에 <나>는 ①②③④의 외출과는 달리 자신이 위치할 공간을 정하지 못한채로 ‘맥없이’, ‘머뭇머뭇’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나>는 외출의 체험으로 <아내>와 <나>의 기이한 관계에서 벗어나 완전하지 못하나마 새로운 삶의 공간을 창출할 수는 있었지만 외출의 반복은 <나>로 하여 그 공간에서마저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은 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서 ………
그냥 줄달음박질을 쳐서 나와 버렸다.³²⁾

자신이 속한 공간에서 뛰쳐나온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의 탈출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나〉가 설 자리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곧 외출 ① ②③에서 현실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지만 외출④에서는 그것마저 단념하고, 외출⑤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한다. 그러나 그것은 한낱 배회나 방황에 불과하고 궁극적인 탈출, 초월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갈망은 외출⑤에서 ‘날개’의 형태로까지 나타나는 것이다.

IV. 指向空間과 實現可能性

외출④까지의 반복에서 〈나〉가 지향한, 새로운 공간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다. 무작정 집에서 뛰쳐 나와서 해매는 외출⑤가 지향하는 곳 또한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나〉는 대낮에 미쓰꼬시 옥상에서 자신이 살아온 스물 여섯해를 회고한다. 그 회고는 몽롱한 기억이라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결국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회고와 반성인 것이다. 다만 지나온 삶이 간헐, 한정된 공간에서의 삶이었기에 불투명할 뿐이다. 스스로 묻는 행위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발견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표현될 뿐이다.

㉗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않는 절음발이인 것이다. 내가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 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³³⁾

㉘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하나? 그럼 어디로 가야하나?³⁴⁾

三十三번지내에서 〈나〉의 삶은 外部世界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반복되는 外出을 통해 外部世界를 경험한 〈나〉는 이미 원래의 삶의 공간에서 생활할 수 없는, 이전의 〈나〉가 아닌 또 다른 공간

33) 『全集』, p. 51.

34) 『全集』, p. 51.

이 있음을 인식한 제2의 <나>인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앞의 인용문 ㉠처럼 지나온 삶에 어느 정도의 당위성을 부여하면서 回歸하려하지만 外部世界를 경험한 <나>의 사고는 인용문 ㉡과 같이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하지만 “인간은 주위의 세계로부터 도피하기도 하고 그 세계에 또 다른 세계를 대치시키기도 하고, 그 세계 속에 몸을 던져서 들어가 가지고, 그 세계를 통해서 자기자신의 인식에 이르기도 한다”³⁵⁾는 전제가 타당하다면 ㉠에서 보여주는 <나>의 생각은 앞으로도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며, 좌절과 그에 따른 극복의 의지로 점철된 생활이 순환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보여준다.³⁶⁾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또 다른 세계를 찾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절음발이 부부’³⁷⁾는 끝내 바로 잡을 수 없는 <나>가 살고 있는 현실의 표상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에서 자신에게 던지는 끝없는 질문이 그것을 입증해 주며, 의문부호를 붙일 수밖에 없는 <나>가 지향해야 할 공간은 원래의 공간이나 체험한 현실세계가 아닌 제3의 공간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3의 세계(空間)를 지향하려해도 현재로서는 그것을 실현할 힘이 없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 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번만 더 날자꾸나. 한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³⁸⁾

즉 外出을 통해 나타난 <나>의 몸부림은 ‘날개’의 不在로 인해 끝내 좌절되고 만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는 현재도 앞으로도 실현불가능한 날개인 것이다. 따라서 ‘날자’라는 말 속에 담긴 希求의 의미는 ‘한번만 더 날아보자꾸나’라는 염원으로 반복되지만 다시는 결코 날을 수 없다는 절망적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35) 롤랑 부르뇌프·레알웨레 공저/金榮華(譯), 「小說의 世界」(文學思想, 1984. 8), pp. 257~258.

36) 李光豊, 「現代小說의 原型的 研究」, (集文堂, 1985), p. 197.

37) 이것은 李箱의 詩 「紙碑」에도 보이듯이 他者와의 同質性을 喪失한 그러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人間의 不條理를 상징한다고 하겠다. [李御寧校註, 「李箱詩全作集」, (甲寅出版社, 1977) p. 59]

38) 「全集」, p. 52.

날고 싶은 意志와 날지 못하는 현실의 벽은 삶의 공간(內部世界)과 外部의 現實世界, 그 어느 쪽에도 적응할 수 없게 된 것으로 脫現實의 바램은 끝내 하나의 꿈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指向空間은 엄연히 설정되었으면서도 그것을 실현시킬 수 없는 현재의 공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남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의도하는 탈출이 비록 허망한 결과를 가져온다 해도 현재의 상태에서 빠져나가 자유롭고 광활한 세계에 접하고 싶은 욕망이 마음 속 한구석에 자리잡고 있다.³⁹⁾

단절된 상황 속에서 살아온 〈나〉에게 外出은 새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意識의 변화로 나타나고, 〈아내〉와 〈나〉 사이의 커져가는 권태의 집적으로 인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태로 발전한다. 그래서 다른 세계로의 脫出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다다르게 되고, 여기서 〈나〉는 다시 좁고 밀폐된 공간, 어두운 공간으로 回歸할 수밖에 없는 좌절과 절망을 또 다시 확인하게 된다.

V. 結 論

이상에서 살펴 본 作品 「날개」는 제한된 공간에서의 삶에서 보다 나은, 그리고 새로운 삶의 공간을 希求하는 갈망을 〈나〉라는 人物의 의식과 행동을 통해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갈망조차도 과거에는 있었지만 오늘에는 없는데, 희망이 제거된 암담한 상황에서 그저 갈망 그 자체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보았다.

즉 「날개」에서의 〈나〉는 三十三번지 내의 좁고 어두운 방(현실공간)과 자유롭고 넓은 세계(지향공간)라는 두 空間을 同時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現實狀況⁴⁰⁾에서 그 해결을 모색하지만 갈등만 심화될 뿐이다. 여기서 〈나〉에게 그 해결책

39) 金炳澤, 앞의 글, p.279.

40) 룰랑 부르뇌프·레알펠레 공저/金榮華 譯, 앞의 글, p.277.

* 「보바리 부인」의 〈엠마〉는 시골의 한구석(현실공간)과 머나먼 고장들(꿈의 공간) 사이의 대립에서 同時受容이 안되자 그 갈등을 죽음으로서 해소한다.

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당시대를 살아온 人物이 주어진 時代의 狀況에서 보여줄 수 있었던 최선의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날개」에 나타난 삶의 공간과 그것이 지니는 意味를 考察하기 위하여 1) <나>의 삶의 양식, 2) 삶의 공간과 체험의 확대, 3) 指向空間과 實現可能性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그 結果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나>의 삶의 양식은 <나>의 空間이 갖는 非日常의인 모습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더욱 밀폐된 자신만의 공간으로 들어가 버림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나>가 보여주는 外出을 통한 일련의 행동은 자신을 찾기 위한 努力이었음을 外出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살펴 보았다.

2) <나>의 空間과 <아내>의 공간은 여러 면에서 불평등한 삶의 空間을 創出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에 대한 <나>의 만족은 <아내>의 空間과의 관련을 定立시키려는 태도이며 意識的인 행위이다. 이것은 <나>가 內部的 世界에서 사는데 반해 <아내>는 外部的 世界에서 사는 양상으로 확인되어 진다.

이러한 <아내>와의 일정한 간격은 <나>가 외출을 함으로써 자신이 살아왔던 世界와는 다른 空間을 발견하게 되면서 흔들리게 된다. 좁은 자신의 世界를 벗어나 행해지는 外出은 <나>에게 체험과 의식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그것은 <나>의 日常的 自我를 확인하는 단계까지 온다. 그러나 반복된 外出의 막바지에 가서는 또 다시 절망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좌절을 겪게 되는 것이다.

3) 外出 前의 空間에서 살던 <나>는 外出로 해서 새로운 世界와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나 자신의 空間에 익숙해 버린 <나>에게 外部世界는 적응하기에는 두려운 환경이다. 하지만 이미 새로운 世界를 알아버려 원래의 空間으로 回歸할 수도 없다. 여기서 <나>는 '날개'를 통한 제 3의 世界로의 脫出을 시도한다.

<나>라는 人物이 날 수 있다면 새 世界는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나>에게 의식 속의 希求의 날개임을 느끼게 해 줄 뿐이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다시 한번 절망을 확인할 뿐이다.

4) 삶이 極小化된 空間 속에서 만족하며 나태해져 버리는 <나>는 사회는 커녕 가족에게도 적응할 수 없어 도피해 버리고 만다. 결국 “한 인간의 내면적 정신의 추이는 그가 살고 있는 세계라는 삶의 체험적 공간에서 벗어날 수 없다”⁴¹⁾

41) 金炯孝, 『韓國思想散考』, (一志社, 1976) p.9.

는 人間의 限界를 「날개」는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날개」에서의 삶의 공간의 意味를 外出이 가져다 주는 空間, 체험의 확대 등과 연관시켜 파악해 볼 때, 〈나〉는 同時代를 살았던 사람들과 동떨어진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통의 아픔을 지닌 人間으로 보여진다. 그러기에 주어진 狀況을 克服할 수 없는 現實이 더욱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런 〈나〉의 삶은 〈나〉로 대변되는 사람들의 생활을 반영한 것이며, 飛翔의 꿈이 좌절당하는 뼈아픈 現實을 보여준다.

參 考 文 獻

〈단행본〉

- 高 銀, 李箱評傳, 民音社, 1977.
 金容稷編, 李箱, 文學과 知性社, 1979.
 _____, 李箱, 志學社, 1985.
 金禹昌, 궁핍한 시대의 詩人, 民音社, 1985.
 金亨子, 韓國近代小說의 文體論의 研究, 三知院, 1985.
 金炯孝, 韓國思想散考, 一志社, 1976.
 徐宗澤, 한국근대소설의 구조, 詩文學社, 1985.
 申相星·俞漢根, 韓國文學의 空間構造, 螢雪出版社, 1986.
 尹弘老, 韓國文學의 解釋學의 研究, 一志社, 1978.
 李光豐, 現代小說의 原型的 研究, 集文堂, 1985.
 李御寧校註, 李箱小說全作集1, 甲寅出版社, 1977.
 _____ 李箱詩全作集, 甲寅出版社, 1977.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弘盛社, 1982.
 全光鏞, 韓國現代小說史研究, 民音社, 1984.
 Frye, Northrop外/김인환(역), 문학의 해석, 弘盛社, 1981.

〈論 文〉

- 金炳澤, 날개의 Imagery에 관한 연구, 東岳語文論集 第十集, 1977.
 金鍾九, 李箱 「날개」의 時間·空間構造, 西江語文 第一輯, 1981.6.
 曹秉式, 날개의 두 表象, 現代文學, 1963.1.
 롤랑 부르뇌프·레알윌레 공저/金華榮譯, 소설의 世界, 文學思想, 1984.1~
 1985.4.